

2014. 2. 7(금) 제 2 회의

제 2 분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복지정책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 안산시를 중심으로

박보식·사득환(경동대학교)

I. 서론

대한민국은 세계화에 따른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의 귀화 및 이주와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구성원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기존 구성원과 새로운 사회 구성원간의 정서와 문화의 불일치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논의들이 정치, 문화,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최성민, 2009: 475). 그러나 다문화에 대한 통일된 정책의지가 부족하고 각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중복되거나 편중되므로 인하여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다인종·다문화 배경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결혼 이민자들이 겪는 언어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들은 인권 침해적인 결혼생활, 가부장적 가정생활, 초국가적 이동에 따른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종적·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해 배우자 및 가족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또한 언어문제 및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들은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자녀를 갖고 가정을 이루어 영구히 정착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될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 역시 일반 외국인 정책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정일선, 2006).

국내 이주 다문화가정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며, 사회적·교육적 기반의 취약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44.2%이나 된다(보건복지부, 2005:162).

2011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의 체류 외국인은 1,410, 259명으로, 2010년 대비 16.5%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총 593, 699명(합법체류자 539, 929명, 불법체류

자53, 770명)으로 전문인력 46, 834명, 단순기능인력 546, 865명으로 단순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다(통계월보, 2011.8월).

한국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동력이 감소하고, 또 젊은이들의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다.

외국인 특히 동남아인이 많이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 나라의 임금보다는 대한민국의 임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대한민국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다. 단순직에서 노동하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심한 차별대우와 임금체불, 폭행 등 다양한 차별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경우, 신분상(법적지위)의 불안으로 정규학교 입학이 기피하거나 입학후에도 학교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교육부, 2007; 김정원, 2005) 안산에서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한국의 공무원이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의 나라로 보낸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다양한 이주민 집단 가운데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주민 집단 중에 제일 처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국제적 인구이동과 노동력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한국의 사회문제를 접근하는데 초점을 두었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8: 25-26). 한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김혜진(1992), 김성수(2007), 설동훈(2007), 조상식(2009)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는 대개 3가지로 분류되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용 안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국가별 비교이다.

한편,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박천웅(2002, 2006, 2012), 박배균·정건화(2004), 이태정(2004), 장진영(2006), 오경석·정건화(2006), 이선화(2008), 오경석(2010)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의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연구는 대체로 3가지로 분류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제 및 차별연구, 원주민과 이주민(외국인 근로자)의 관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정책과 시민단체의 역할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경석(2010)은 다문화 안산시 원곡동의 “다문화 중심도시”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원곡동을 “다문화 으뜸 도시”와 “떠나고 싶지만 갈 곳이 없는 뜨내기들의 집합소”라는 모순된 양상으로 표현하였다(송석원 외, 2011:33-34)

안산시와 민간기관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다문화 1번지, 다문화 으뜸도시로 추앙받는 안산시 원곡동의 변화에 대해 정작 원곡동 주민들은 비관적인 태도를 갖는다. 오경석은 모순된 공간인 원곡동이 진정한 “다문화 중심도시”로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오경석, 2010: 39-45)

박천웅(2012)은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고찰을 통하여 바람직한 다문화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사회의 목표는 국내의 모든 거주자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형성하는 것인데, 국내 이주민들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우리사회에서 인구적 차별과 배제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어렵다. 견해에 따라 다문화 사회는 한 국가내에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우러져 상호간에 다른 인종과 민족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 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로 정의 한다(김혜순 외, 2007:15). 즉,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 집단들이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함으로써 형성되는 사회이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용어는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표갑수 외, 2009: 23).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의미있게 부각된 사회(외국인정책위원회, 2007: 7)로 보고,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로 정의하기도 한다(장지표, 2008: 1-2).

이런 가운데 다문화 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에는 주류문화 또는 주류민족으로의 동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수민족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민주화의 증진은 소수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¹⁾

이에 따라 1970년대 동화주의 사회통합론이 쇠퇴하면서 다문화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그 후 논쟁이 활발해 졌다. Noheln과 Schultze는 다문화사회를 한 사회안에 2개 이상의 문화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과 유사성을 어떻게 통합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통합은 여러 개별요소들이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공통의 가치와 규범들에 기반한 요소들을 결속 유지하며 구성원들이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결합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박기관, 2011: 196)

Castles와 Miller는 이주근로자나 이주민들을 수용하는 유형을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Castles & Miller, 1998: 171-201)

차별배제모형은 한 국가내의 인종적 소수인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국민의 단일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소수 인종과 소수 문화를 인식한다. 독일,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이 주로 수용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내국인, 외국인을 혈통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구분하여 왔다(박우순, 2008: 126)

동화모형은 새로운 국가에서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이주민들이 내국인들과 공적으

1) 규범적인 측면에서 다문화사회가 도입되기 전에 다민족적 사회에서 진행된 국민형성과정(동화주의)은 자유민주주의와 규범적으로 양립할수 없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으며, 근대자유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제도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국민들 사이에 폭넓게 공유된 특정한 규범, 자세, 성향이 있어야 한다(신현태 외, 2012: 179).

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것으로 이주민으로 건설된 국가들, 즉,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차별과 배제에서 출발하여 동화로 이행해 가는 형태를 보인다. 이 모형에서 국가정책은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의 전이를 용이하도록 지원하지만, 소수 문화 고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으며, 최근 동화주의 위기와 함께 다문화주의모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한승준, 2008; 정명주, 2010)

다문화모형은 1970년대 차별 배제모형과 동화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이주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이주민들의 고유문화를 인정하고 장려하면서 동화가 아닌 공존에 힘으로써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수많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주집단의 문화와 가치에 대해 개방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이주집단 대상별로 각기 다른 관점의 모형이 혼재하면서 사회통합에 대한 원칙과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채 정책들이 수립·집행되어 왔다(정명주, 2010:280). 한국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재정립이 요구된다. 사회통합모형의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회통합모형의 특징 비교

구분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 모형
공통점	이념형으로 현실에서는 그 순수성을 찾기 힘들		
문화적 지향		주류문화와의 문화적 동질화 추구 및 추상적인 타문화 이해와 수용	문화적 이질성 존중, 구체적인 타문화 인정과 보호
국가 역할	거의 없음	매우 제한적	매우 적극적
정책목표	원치않는 이민자 차단	이주자 집단의 주류사회 동화	다양성 인정을 통한 사회 통합
갈등해소 방안	강제추방	주류사회와 완전한 동화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및 주류사회로의 완전한 진입
정책수단	이주자 규제정책	소수집단 차별방지를 위한 규정	소수집단 문화와 권리 보호 규정
다양성 개념	이질적 문화에 대한 배타성	사적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사적, 공적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평등개념		기회 평등	결과 평등
이주자에 대한 관점	배제의 대상	노동력, 이방인 통합의 대상	사회구성원, 사회다양성의 원천
비판	현대사회에 부적합	이주민 동화 어려움과 이주민의 현실적 사회 배제	민족정체성 약화 및 사회적 분열초래 가능
모형의 한계점	이주 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체적 내용 파악에 부적합		

자료 : 김선영(2009:179) 재인용

III. 안산시의 사례와 대응 분석

다문화와 관련된 안산의 명성은 화려하다. 이주민 당사자들에게 안산은 “이주 노동자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주민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다.

또 안산은 “국경없는 마을”로도 유명한 곳이다. 안산시 원곡동에는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소개되기 훨씬 이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 이주민 지원 NGO(비정부기구)의 주도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라고 명명된 다문화 공동체 운동이 시도된 곳이다(오경석, 2010: 39).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1990년대 중반에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대표인 박천응 목사에 의해 기획되었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법과 제도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인 지평차원에서 접근할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을 위해서 값싼 노동력의 판매자로부터 총체적인 인간으로, 일시적인 체류에서 함께 정주하는 우리들의 이웃으로 그들을 새롭게 바라볼수 있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문제의식이였다. 즉,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는 이주노동자의 시민권을 일상의 차원에서 실천해 보려는 시도였다. 이처럼 이 프로젝트는 현장운동가의 독자적인 경험과 문제의식에서부터 촉발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논의 참가자들의 폭이 넓어지며 논의의 수준도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상승되었으나²⁾, 이 프로젝트가 선구적이며 실험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새로운 사회운동, 이론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여전히 추상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오경석 외, 2006:72-730³⁾

안산시에는 2013년 6월말 현재 외국인이 58,1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많이 거주하는 나라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 41, 573(34, 531 한국계 중국인 포함), 우즈베키스탄, 4,600명, 베트남 2,582명, 인도네시아 1,301명, 러시아1,228(한국계 러시아인 1,092명 포함), 필리핀 1,056명, 네팔 712명 등으로 75국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며 자세한 국적별 현황은 <표 2>와 같다⁴⁾

<표 2> 국적별 안산시 등록외국인 현황

(2013년 6월말 현재, 단위: 명)

국적별	중국 (한국계 포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한국계 포함)	필리핀
75개국 58,100	34,531	4,600	2,582	1,301	1,228	1,056
	네팔	스리랑카	타이	방글라데시	몽골	기타
	712	609	517	516	462	11,387

출처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http://global.iansan.net>). 정보마당 자료실 .

2) “국경없는 마을”에 관한 학술자료로서 이태정(2004), 예동근(2004), 박혜균·정건화(2004)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박목사가 제안한 시민권 관련 포럼은 박목사가 직접 발제자로 참여한 것만도 2004년에 2번이나 있다.

3) “국경없는 마을”이란 1999년부터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서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동체 형성 운동이다

4)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http://global.iansan.net>). 정보마당 자료실 참조.

이들의 체류자격별 특성을 보면 단순기능인력이 30,103(51.81%)명으로 안산의 공단 지역에서 열악한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결혼 이민자 5,343명(9.20%), 외국국적동포 11,376명(19.58%), 유학·연수 712명(1.23%), 전문인력 516명(0.89) 방문 등 기타 10,050명(17.30%)으로 분포되어 있다. 즉, 단순기능 근로자가 전체의 51.81%이고, 결혼이민자가 9.20%로 이 두 분류가 61%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안산은 단순기능 근로자가 많은 이유는 안산시에 반월 공단이 있고, 주변 시흥시에 시화공단이 있는 관계로 외국인 단순 노동자가 타 지역보다 매우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안산시는 201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기업체가 8,852개가 있으며, 기업체의 직원이 약 18만 3천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많은 기업의 직원 중에서 소위 3D 업종은 한국인이 선호하지 않은 관계로 이 분야에서 외국인이 많이 취업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이주 노동자의 꾸준한 증가는 국내 기업의 저임금 시장을 통한 생산 상품의 국제 가격경쟁력 강화와 부족한 인력을 채우려는 경제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였다.

1990년대 초기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소위 3D 업종(기계, 염색, 도금, 선반 등)에 지원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절대수의 부족으로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1인당 연간 GDP 가치는 260만원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9). 그만큼 이주 노동자는 한국사회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이주민의 영역이다. 이렇게 한국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이주 노동자에게에 대하여 한국인은 이들에게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 편견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주 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것이다. 법무부출입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는 총 551,858명중 합법체류자는 503,829명(약 92%)이고, 불법 체류자는 45,683명(약 8%)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불법체류자라는 인식은 또 다른 사회적 편견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편견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2차 산업인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고, 3차 산업인 서비스 업종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과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1일 평균 12시간을 일한다. 이주노동자의 연평균 노동“미친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도한 노동은 결국 산업재해와 건강권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또 장기간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값싼 인력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⁵⁾.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입국 전의 계약과 입국 후의 근로계약 위반 사례도 58.3%에 이른다. 그러나 근로 계약이 위반되어도 언어 등의 문제로 제때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사업장 내에서의 차별은 언어적 차별(78.2%)이 가장 높고,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도 43.9%에 이른다(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11).

5) 이주노동자의 임금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볼 때 120-140만원 사이가 49.4%이고, 최저임금 -120만 이하의 경우가 28.1%이며, 최저 임금 이하가 5.3%로서 전체 140만원 이하 임금의 노동자는 전체 73.8%에 이른다. 장시간 노동에 비하여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수령하고 있다(박천웅, 2012).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결혼을 인신매매 성격으로 몰아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풍토는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는 한국사회에 부끄러움이 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은 한국인 남성의 결혼 필요자들을 향한 광고 문구가⁶⁾ 혐오감과 편견을 자아내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 가정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주거 환경도 취약하다. 국제결혼 가정의 가정 월 평균 소득은 100만- 200만원 미만인 38.4%이고, 저소득층인 100만원 미만이 21.3%로 전체 200만원 이하의 소득이 59.7%에 이른다. 그리고 농촌 총각 결혼의 40%가량이 국제결혼을 하며, 결혼 이민자의 82%가 집안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결혼 증가에 따라 이혼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2000년 전체 한국인의 이혼 중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3%(1694건)에 불과한 것이 2010년에는 9.6%(11,245)로 거의 10배나 이혼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10). 국제결혼에서 이혼한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비참한 실정이다.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53.4%로서 경제적으로 ‘신빈곤층’을 양산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박천웅, 2012).

그리고 다문화 자녀의 문화적, 교육적 차별 현황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⁷⁾. 안산시의 다문화정책도 이런 환경속에서 이루어지고 발전하여 왔다. 안산시의 외국인 정책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점차 여성결혼 이민자에게까지 확대되어 갔는데, 이런 과정에서 안산시의 정책이 매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가 태동하게 된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모두 한국인과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각종 지원예산과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나 지원은 미약하다(김영주, 2009;178).

안산시의 외국인정책은 바로 이들 외국인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안산시는 반월· 시화 공단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국 인력을 적극 도입하였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정책 담당기구가 중앙정부의 관련 조직에 대응하는 형태로 조직되었는데(박세훈, 2011:10-12), 안산시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이며, 연혁은 <표-3>과 같다.

6) 국제 결혼 광고 문구가 ‘베트남 스티치녀, 장애인 환영, 노인에게도 젊은 여자 보장, 탈북 여성도 있음’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에게는 국제결혼에 대한 혐오감을 주고, 이주민에게는 심각한 인권차별과 문화적 편견을 보여 주고 있다(박천웅, 2012).

7)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문화 가정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한국인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68.8%이고, 한국어 문제로 학교 입학이 어려운 경우가 61.4%이며, 학교에서의 발음으로 인한 놀림이 41.9%이며, 무시가 36.6%이고, 피부색이 다른 이유가 25.3%이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차별하는 경우가 21%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표 3〉 외국인 주민센터 연혁

년도, 월	주요 내용
2003.07	외국인근로자 종합복지건강지원센터 건립계획 수립
2004.09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계획 수립
2005.02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승인
2005.05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
2007.04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2008.02	이주민통역지원센터 개소
2008.02	외국인주민센터 개소
2008.03	다문화 현장 제정 (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산시)
2008.03	인권교류증진 협약 체결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안산시)
2008.05	거주외국인 지원 민·관협의체 구성
2008.05	기업은행 외환송금센터 개소
2008.10	다문화 작은 도서관 개관
2009.02	다문화아동담당 신설
2009.03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5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지식경제부)
2009.12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2010.03	글로벌 아동센터 개소
2012.02	다문화 홍보학습관 개관

외국인 주민센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산시는 2005년 2월에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를 승인받아, 같은 해 5월에 개소하였다. 이에 2008년 2월에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9년 5월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되었고, 2012년 2월에는 다문화 홍보학습관이 개관되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는 1사업소 5담당(외국인정책, 다문화 교류, 다문화 교육, 외국인 인권, 다문화 아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모두 19명이다(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대한민국 다문화 중심도시 안산, 2012).

안산시외국인 주민센터에는 다문화 홍보문화관,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안산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 다문화 작은도서관, 문화의 집, 무료진료센터(원곡보건지소), 외국송금센터 등이 들어서서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학습관에서는 세계전통악기체험, 세계전통의상 체험, 세계화폐와 유물체험, 다문화 강사와 함께 하는 맞춤형 체험교실 운영, 다문화 놀이체험 운영, 찾아가는 다문화체험 일일교실 운영, 언어동아리 CAFE 운영, 다문화 거리 탐방 등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학습공간을 만들어 어린이 및 성인들에게

보다 다양하게 다문화에 대하여 이해할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편견없는 세계관을 갖는데 기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 지원 기반 강화, 다양한 언어⁸⁾로 상담 및 통역을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산업재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고, 배움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교육, 직업능력 개발교육(운전면허, 미용·헤어, 제과제방 등),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활용, 정보기술자격 취득반 등의 다양한 컴퓨터 교육과 다문화 이해 강좌 및 다문화체험 일일교실 등을 통하여 다문화를 이해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는 설립당시 국비, 시비를 받고 2008년에 설립되었다. 2013년 10월말 현재 총인원은 소장 포함 21명이다. 외국인정책담당에 6명, 다문화교류담당에 4명, 다문화교육담당에 4명, 외국인 인권담당에 3명, 다문화 아동담당에 3명이다.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은 5개 담당 업무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국인정책담당이다. 담당업무는 외국인 주민센터 운영총괄, 조례, 규칙 제정 등 지원기반 마련, 거주 외국인 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외국인주민실태조사, 원곡특별순찰대 운영, 다문화 마을 특구 운영, 특구지역 발전 및 외국인 상권분석, 센터 홍보 등 대외협력이다.

둘째는 다문화교류담당이다. 담당업무는 다문화 축제 추진, 외국인 공동체·국가별 주간 행사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센터 부설 예술단 운영, 거주 외국인인 대표자회의 운영이다.

셋째는 다문화 교육담당이다. 담당업무는 사회통합·한국어·컴퓨터·기술교육, 다문화 이해 증진 사업(다문화 이해 강좌), 공동체 소식지(안산 하모니, 홈페이지 운동)운영이다.

넷째는 외국인 인권담당이다. 거주외국인 복지시책 개발, 인권 증진 기반 조성 사업, 후원·결연 등 연계협력사업, 이주민통역지원센터·모니터 요원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다.

다섯째는 다문화아동담당이다. 통합서비스 시책 개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원 개발 및 서비스 연계,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이다(송석원 외, 2011).

즉 이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시민과 외국인 주민이 더불어 잘 사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안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전담기관이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며, 다문화 공동체 형성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본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표 4> 와 같다.

8) 지원언어로는 한국어(사업주대상),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 몽골어, 태국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를 지원하고 있다(안산시외국어주민센터)

〈표 4〉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부서의 주요 담당 업무

구분	담당 업무
소장	외국인주민센터 업무 총괄 거주 외국인 지원 시책 개발
외국인 정책담당	외국인정책 관련 시책 개발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총괄 대사관 연계·협력사업 추진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및 개발 총괄 외국인밀집지역 관리
다문화 교류담당	중앙정부 및 대사관, 외부기업 지원사업추진 지구촌 문화사업 시책개발 다문화공동체 형성 다문화 축제 추진
다문화 교육담당	다문화교육업무 총괄 다문화교육 시책사업 기획 내·외국인 교육지원 체계 구축 외국인대상 발굴·시상
외국인 인권담당	외국인인권 및 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수립 거주외국인 인권 복지 시책 개발 지역사회 다문화 자원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 아동담당	다문화아동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글로벌문화센터 건립 추진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IV.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현재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업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가 잘 못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산시는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송석원 외, 2011).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2000년 이후 활발하게 추진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신현대 외, 2012:193-194)단지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그 2세의 증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로 인한 사실상의 정주화 등의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으로 한민족이면서 또 다른 이질적 문화를 갖고 있는 북한 주민의 유입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한국정부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재정립이 요망된다.

또 한국은 사회통합모형의 분류 비교에 의하면 차별배제 모형을 유지하는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지 국민의 단일성만을 강조하며, 원치 않는 이민자는 차단하고, 다문화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강제추방을 시킨다거나 다양한 이주자 규제정책으로 이질적 문화의 배타성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다만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향적 자세를 지니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이 차별배제모형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해외 주요 나라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합적 차원의 이민정책을 연계하여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여전히 이민에 대하여 소극적이며, 결혼 이민자라는 제한적 대상에 치우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관리·통제 차원에서 이주민과 공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 현장의 이주근로자의 부당한 대우나, 결혼 이민자의 차별과 편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원칙과 방향의 근간이 마련되어야 하나 이 분야에서 많은 부족함이 제기되고 있다(신현대 외, 2012: 195-196).

안산시는 다문화 공생을 모색하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전담부서인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설치,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3가지의 시책은 안산시가 외국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수 있다. 이것은 거주외국인 지원기반 구축 및 정착 지원, 인권 증진 기반 조성이 구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특히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의 제정으로 안산시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생활할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⁹⁾되었고,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모든 주민이 상호 협력하여 외국인주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민족,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다¹⁰⁾. 특히 무엇보다도 이러한 안산시의 다문화 정책이 2000년대 후반에 크게 활성화되었다(송석원, 2011:138).

그러나 이렇게 안산시가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과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산업현장이나 다문화결혼 가정 일부에서는 심각하게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거주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면 이들은 더 많은 인권적 차별을 심하게 받고, 이들은 이 차별적인 대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관계로 이것을 문제 삼으면 자신은 추방될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많은 차별과 멸시를 받아도 이를 해결할 방안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안산시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나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타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서 획기적인 것은 사실이나,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의 가

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 5조 지원대상, 제 6조 지원사업 참조.

10)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 2조 기본이념, 제 5조 외국인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 참조.

와사키시처럼 다문화 정책이 행정 위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다문화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가와사키시는 외국인의 시정 참가, 지역에서의 외국인시민 그룹 등의 활동 지원 등 외국인시민의 사회참가를 촉진하는 시책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¹¹⁾. 우리 안산시도 보다 다양하게 거주외국인이 시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¹²⁾.

일본의 가와사키시는 일본의 중앙정부의 지지도 따르면서 선제적으로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면, 시영주택 입주자격의 국적 조항 철폐와 아동 수당의 지급은 1975년부터 이미 실시하였고, 외국적 시민의식 실태조사 실시, 외국인고령자 복지수당·외국인심신장애자 복지수당, 시의 직원 채용시 국적조항 철폐 등을 추진하였다(송석원, 2011).

한국의 안산시는 일본의 가와사키시의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거주외국인과 같이 공생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 안산시에서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 중의 하나는 거주외국인과 안산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거주외국인들도 현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안산시민도 외국주민의 문화나 의식, 태도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그들도 안산시민의 한 주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그들에게 무조한 한국의 문화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고 한국의 생활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안산시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인 원곡동에 2009년 5월 1일부로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¹³⁾로 지정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걷고 싶은 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 다문화 음식 거리 조성, 다문화 홍보학습관 운영 등 거주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런 정책이 안산의 거주외국인에게 얼마만큼 효과를 주며 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지나치게 보여주기 위한 면이 있다는 것도 배제할수 없는 현실이다. 안산시의 다문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표 5>와 같다.

11) 가와사키시는 꾸준히 다문화 외국인시민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12) 일본의 가와사키시는 다문화 공생 모색으로,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의 조례, 외국인교육기본지침, 인권시책추진지침, 거주지원제도, 다문화공생사회추진지침 등의 다양한 제도 및 지침이 운영되고 있다(송석원, 2011).

13) 다문화마을 특구는 주민 3명 중 2명이 외국인이며, 여러 나라의 외국 음식점과 상가들이 있다. 이 마을은 주말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외국인이 찾아오는 이국적인 풍경을 볼수 있다. 안산시는 외국음식점이 밀집한 특구 중심거리를 다문화음식거리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곳 음식은 현지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많은 나라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맛볼수 있는 특징이 있다(안산시외국인 주민센터의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팸플릿에서)

〈표 5〉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상	문제점	개선방안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 1사업소 5담당(외국인정책, 다문화 교류, 다문화 교육, 외국인 인권, 다문화 아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다 적실성있고 체계적인 방안 요망	* 거주외국인의 실질적 효과 향상 방안 모색(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각종 설문조사를 통하여 외국인의 욕구 충족 및 참여 증대 방안 모색 *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추진 (특히 복지와 인권)
사회통합모형	* 차별배제 모형 1) 노동자 차별 및 배척 2) 타문화 이해 부족 3) 한국문화 동화 요구(갈등)	* 다문화 모형 1) 산업현장의 노동자 인권 존중 2) 이주민의 고유문화 인정 및 수용 3) 법과 제도 정비 및 한국인의 사고의 전환 요망
조례제정	1)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2)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를 제정	1) 안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조례 지정(지원조례, 인권 증진) 2) 일본의 가와사키시처럼 다양한 문화공생정책을 추진하고 (예. 시영주택 입주자격의 국적 조항 철폐, 아동 수당의 지급, 외국적 시민의식 실태조사 실시후 문제점 해결, 외국인고령자 복지수당·외국인심신장애자 복지수당, 시의 직원 채용시 국적조항 철폐 등)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
현지인과 거주외국인과의 교류	1) 진지한 교류가 제한적임 2) 한국인이 거주외국인을 불편한 대상으로 여김	1) 다양한 문화 교류의 활성화 2) 인권존중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접근 모색 3) 외국인의 현지화 교육과 지역주민의 타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지정	1) 다문화 음식문화 조성 2) 다문화홍보 학습관 운영	1) 홍보 및 관광상품으로 개발 2) 찾아오는 홍보가 아닌 찾아가는 홍보로의 변모와 거주외국인이 다양한 문화 상품을 개발토록 지원방안 강구 3) 다문화 음식문화 활성화 방안 강구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관점의 접근과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거주이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들이 편안히 생활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차별배제 모형으로 일관하여 거주외국인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주 근로자들은 3D 업종에 근무하면서 열악한 환경과 각종 차별 대우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느끼며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은 한국문화 이해의

어려움과 언어의 어려움, 그리고 일부 다문화 가정 남성들의 멸시와 배려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글의 미숙으로 인하여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조례 제정은 안산시로서는 대한민국 최초이며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나 일본의 가와사키시처럼 보다 다양한 정책적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이 요망된다.

현지인과 거주외국인과의 보다 다양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외국인의 현지화 교육과 지역주민의 타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한국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하며 한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한국에서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 각종 설문조사를 통하여 외국인의 욕구 충족 및 참여 증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소통의 장을 넓히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다 포용적인 자세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할수 있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지정도 상당히 신선한 발상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 특구 지정이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제로 활성화되고 외국인이 즐겨 찾을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룬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도 현실이다. 이들이 대부분 평생을 한국에서 살게 되는데 까다로운 한국국적 취득의 어려움을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도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줄이는 한 요인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아쉬움은 보다 철저한 리서치와 깊은 분석에 한계를 느낀다. 이 다양한 다문화 정책분야를 더욱 깊게 연구하여, 다문화가족의 현주소를 보다 실제적이며 현실적으로 연구·파악하여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불편요소를 줄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런 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느끼며 다음 연구에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07).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교육인적 자원부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0」
 김영주. (2009). 여성외국노동자의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 「민족연구」 제 37권. p.178
 김정원. (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순 외.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시아대위원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1년 8월호). pp.8-20.
 박기관. (2010). 다문화시대의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정책연구」. 제 11권 제 1호. pp.193-213.

- 박세훈. (2011). 한국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의 비판적 성찰: “다문화 도시정책”의 제언. 「공간과 사회」 제 36호. pp 10-12.
- 박우순. (2008).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본 한국 이민정책의 한계와 전망.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이민정책 릴레이포럼(부산)
- 박천응. (2012).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실 비판과 정책적 과제. 「선교와 신학」 29집.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신현태 외. (2012).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 연구」. 제 13권 제 4호.
- 송석원. (2011).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정책 한일비교연구 : 안산시와 가와사키시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 18권 제 3호.
- 송석원 외. (2011).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안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제5권 제 2호(제10집). pp.33-34.
-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2012). 대한민국 다문화 중심도시 안산.
- 오경석. (2010). 다문화중심도시의 이상과 현실: 안산시 원곡동의 경험. 「국토: planning and policy」 342권. pp. 39-45.
- 오경석· 정진화. (2006).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한국 지역지리학회지」 제 12권 제 1호. pp. 72-73.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11). 고용허가제7년 이주노동자실태조사.
- 자치법규시스템.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 자치법규시스템.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정명주. (2010). 정책수단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제1차 외국인 정책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 연구 26(2). pp. 275-295
- 정일선. (2006). 「길찾기 :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국제여성정책심포지움 자료집.
- 최성민. (2009). 한국 다문화가정의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교육논업」 제17호. pp. 475-508
- 통계청. (2010). 2010년 혼인 이혼 통계.
- 표갑수 외. (2009). 충북지역 다문화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28집
-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연구원,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및 중장기관리체계 개선 방안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 과제. pp. 25-26
- 한승준. (2008).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거버넌스 분석.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67-87.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http://global.iansan.net>).